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아 10호 발행·편집인: 회장 손상윤 / 인쇄인: 이철구 대표전화: (02)978-4001 주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7, 101호

# 문재인 아버지 북한 인민군 군관 6.25 때 생포 학도병 스님 증언에 대하여 문재인은 답변하라!

##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우리 부모님 세대와 선배님들의 피와 눈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목숨과 맞바꿔 이룩한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이 붉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 대통령 문재인은 응답하라!

##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른 출생의 비밀 3개를 직접 소명해야



### <의혹1> 부모가 흥남 철수 때 내려왔다?

대통령 문재인은 자기 부모가 흥남 철수 때 내려왔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뉴스타운TV' 유튜브 방송에서 증언한 학도병 출신 윤월 스님은 "1950년 8월 29일 경북영천 전투에서 내가 인민군 군관(장교) 문용형(문 대통령의 아버지)을 생포했다"고 증언했다. 서로 다른 이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해명하라.

### <의혹2> 문재인,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나?

본인은 1953년 거제도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이번엔 윤월 스님은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 "1957년 8월 당시 7~8세 된 소년 문재인을 만났다"고 정확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나라 대통령은 대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인가? 이 거대한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해명하라.

### <의혹3> 강한옥 여사, 생모 아니다?

얼마 전 타계한 강한옥 여사에 대해 윤월 스님은 "문용형(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이 포로로 잡힌 뒤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만난 여자가 그 사람이며, 본 부인은 북한에 따로 있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2004년 이산가족 상봉 때 만난 막내 이모 강병옥이 본부인이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의혹에 대통령은 해명하라.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서 운영하는 '뉴스타운TV'는 지난 2월 16일 충격적인 증언을 내보냈다. 6.25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윤월 스님이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인 문용형은 당시 북괴 인민군 상위(대위)로 낙동강 전투에 내려왔으나 수색작전 중인 그를 내가 경북 영천 전투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포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증언으로 문 대통령의 부모가 흥남철수 때 내려왔다는 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걸 비롯한 문 대통령 출생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며, 무엇보다 이 나라 최고지도자의 과거가 수상쩍다는 여론이 만들어졌다. 이미 그 방송은 공식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겼을 정도로 뜨겁다. 문제는 청와대가 입을 닫고 있다. 저들은 이걸 규명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공개로 전환시켰고, 주류 언론 역시 이 문제를 보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야당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에 뉴스타운은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사안에 대한 공론장 마련을 위해 이 광고를 제작했다.

자발적 구독료 · 광고비 후원 : 국민은행 073001-04-055726 (예금주: (주)뉴스타운) / ARS 후원 : 1877-1310  
전화문의 : 02-978-4001 / 이메일 제보 : newstowncop@gmail.com / 뉴스타운 신문 : www.newstown.co.kr

# '국민 의혹' 문재인 출생 비밀 터졌다

## 학도병 출신 윤월 스님 "문재인 아버지는 인민군 상위" 방첩대 출신 김인호 선생 "문용형은 흥남공산당 거물"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서 운영하는 '뉴스타운TV'는 지난 2월 16일 충격적인 증언을 방송했다. 6.25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윤월 스님(88)이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인 문용형은 당시 북괴 인민군 상위(대위)로 낙동강 전투에 내려왔으나 수색작전 중이던 그 자를 내가 경북 영천 전투에서 동료 세 명과 함께 생포했다"고 밝힌 것이다.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증언으로 문재인 부모가 부모가 흥남철수 때 내려왔다는 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문재인 출생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그 방송은 공식 비공식 조회수가 수 백만 회를 넘겼을 정도로 뜨겁다. 후속 보도도 잇달았다. 6.25 당시 국군방첩대원 김인호(86) 선생, 올해 연세 98세 된 본의 위인은 증언이 터져나온 것이다. 증언의 핵심은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흥남 지역 공산당의 핵심이라는 폭로다. 이게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처하에서 공산당 입당 제안을 수 차례 받았으

나 그때마다 거절했다"라는 문재인 자서전 <운명> 내용을 정면에서 뒤집기 때문이다.

이 땅에 무수한 방첩포가 있고, 그들도 대한민국에 충성된 국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애써 감춰둔 문재인, 당시 대체 누구냐를 국민은 또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보니 앞뒤가 다 이해가 된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해운 것이란 게 대체 뭐냐?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로 만들어버리고, 2년 반 전 남북군사합의라는 걸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사실상 해체해버렸다.

이런 명백한 국가 파괴행위, 반역행위라는 게 혹시 문재인이 출생 의혹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그걸 물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입을 다물고 있다. 저들은 이걸 규명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공개로 전환시켰고, 주류 언론 역시 이 문제를 보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출생 의혹 규명 작업은 의

미없다. 영천투에 이 등 크고 작은 신문들이 보도를 시작했고, 일본 통일일보 등에서 이젠 광고를 전제하는 등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을 지킨 윤월 스님 같은 학도병을 기리는 행사와 사

업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문재인 출생의혹 규명은 이제 정치투쟁이자 문화운동으로 성령 번져가고 있다.

주우석 뉴스타운 주필/평론가 전 중앙일보 기자, KBS 이사



사진 왼쪽이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 이 한 장의 사진...문용형 빼박 증거 찾았다

### 주격턱 턱선에서 눈매까지 문재인과 닮은꼴 당 간부들이 입는 인민복 차림인 점도 눈길

백 말이 필요 없다. 분분한 말보다 때론 사진 한 장이 진실을 웅변할 수 있는 데. 지난 3월 17일 뉴스타운TV에서 방송된,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옛 사진이 그랬다. 호숫가 1940년대 말 사진이지만, 영상 속의 그는 특유의 주격턱 턱선에서 눈매까지 이 나라 현직 대통령 문재인과 너무도 흡사했다. 그날 방송 제목이 '文 아버지 문용형'을 때 사진 찾았다'였지만, 수많은 댓글이 같은 의견이었다. 일반 안목도 아니고 당시엔 공산당 간부들이나 입는 인민복 차림인 점도 눈에 띄었다.

사실 문재인이 출생 의혹을 다른 제 방

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말했다. 제 방송 앞에 문재인 출생 의혹을 다른 일련의 뉴스타운TV를 지켜보면서 수많은 독자 분들이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의 사진 한 장만 구할 수 있으면 게임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 사진을 보고 윤월 스님이 문용형이 맞다, 혹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 진실 규명은 빨리 끝날 수 있다

는 얘기가. 문제는 그게 쉽지 않은데, 역설이지만 윤월 스님의 증언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즉 증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문재인이 "이것이 진짜 우리 아버지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며 자기 아버지 문용형이 사진을 진짜에 내놓을 것이

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 문재인은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사진을 확보한 것은 2년 전 KBS-1TV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됐던 이산가족 프로그램에서 접한 것이다. 이 사진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2004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자리에서 북한 이모로 설정된 강병옥이 불속 내놓았고, 문재인이 반색을 하며 지켜봤던 문제의 그것이다. 여기서 그 사진 속의 두 남자 중 왼쪽을 문용형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몇 번의 검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우선 윤월 스님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누가 문용형으로 보이냐고 물었더니, 크게 망설이지 않고 왼쪽 남자를 가리켰다. 당신이 잡았던 젊은적 문용형의 외모와 매우 닮았다"는 뜻이다. 윤월 스님은 문용형을 생포한 뒤 두 번 더 만

났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을 우린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으로도 문용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인명의 증언자도 왼쪽 남자를 문용형으로 지목했다. 그 남자가 누구냐? 문용형은 1978년도에 사망했는데, 그때까지 그를 형님 형님하고 불렀던 사람이고, 흥남철수 피난민 출신이며 경찰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당시 방송을 했던 주우석은 밝혔다.

이번 추정이 맞다면, 우린 젊은 시절의 문용형, 즉 중남지역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농업과장 직분으로 식량배급권을 쥐락펴락하던 흥남의 거물 공산당원 문용형의 당시 얼굴을 확인한 셈이다. 그리고 그 직후 인민군 상위 계급장을 달고 경북 영천 전투에서 생포되기 직전의 문용형 모습을 확인한 셈이다. 단, 단정은 못한다. 남은 건 본인인 문재인이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출생 의혹 전체를 담담히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

발·간·사

## 21세기의 '낙동강 전선' 학도병의 魂으로 붉은 바다에 빠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지난 2월 16일 6.25 사변 당시 학도병용군(이하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윤월 스님(88)이 뉴스타운TV에 출연해 충격적인 증언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인 문용형은 당시 북괴 인민군 상위(대위)로 낙동강 전투에 내려왔으나 수색작전 중이던 그를 내가 경북 영천(보현산) 전투에서 동료 세 명과 함께 생포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학도병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몸 바쳐 지키고자 했던 젊은 시절의 용기를 되살린 증언이었고, 그 증언은 국내내외에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스타운은 이들의 애국 충정과 위대한 효국정신을 오늘 우리 사회에 되살려 영원히 기억하고자 합니다.

학도병기념사업회를 만들고 학도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범국민운동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뉴스타운은 6.25 학도병 참전 기록들을 발굴, 연구, 저술하고 영화나 뮤지컬,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역사 사업을 통해 10대 중고등 청소년들을 깨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합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침공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습니다. 국군은 한 달 만에 낙동강 연안까지 밀고 내려왔고 나라의 운명은 흥전동화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를 떠나 빨갱이 흩어졌던 수많은 학생들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학도병이 됐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학도병의 신분으로 펜 대신 총을 잡고, 군복이 없어 교복에 철모 아닌 교모를 쓰고 전선에 뛰어났습니다.

그렇게도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 다부동 전투, 영천, 포항, 영덕 장사상륙작전(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한 양동작전) 등의 전투에서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히 싸워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서울을 거쳐 평양, 운산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고난을 헤쳐며 오지 백척간두에 선 조국을 구원

한다는 일념으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젊은 피를 조국의 산하에 흘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구국의 일념으로 용감하게 싸웠던 학도병들과 수많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뉴스타운은 이들의 애국 충정과 위대한 효국정신을 오늘 우리 사회에 되살려 영원히 기억하고자 합니다.

학도병기념사업회를 만들고 학도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범국민운동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뉴스타운은 6.25 학도병 참전 기록들을 발굴, 연구, 저술하고 영화나 뮤지컬,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역사 사업을 통해 10대 중고등 청소년들을 깨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영웅인 학도병들의 숭고한 효국·애국·희생정신을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하고 세계화에 나서서 자랑스러운 대열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 사회주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종북 공산주의자들은 민주화란 가면을 쓰고 지난 70년 동안 북괴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 우리의 건국기념과 헌법 가치를 저들에 의해 철저히 버려졌고, 자유 대한민국은 이제 또 다시 공산화의 비랑 끝까지 끌려 있습니다.

뉴스타운은 이 비랑 끝의 위기를 낙동강 전선을 파로 지켰던 학도병들의 혼을 되살려 극복하고자 합니다. 애국 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뉴스타운(부설) : 학도병기념사업회 손상윤 회장

## 꼭 같아야 할 빛이 있습니다!

꼭 같아야 할 빛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가 같아야 할 빛이 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기억 어느 한 편에 사공파리처럼 박혀있어 때가 되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잠시 떠올랐다 다시 잊혀지곤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펜과 총을 던져놓고 전선에 나섰습니다. 꽃 같은 젊음, 젊음의 붉은 피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5만여 6.25참전 소년 소녀 학도병(학도의용군) 그들의 용기있는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잊혀진 영웅들 그분들에게 꼭 같아야 할 빛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빛을 같아야 할 때입니다.

잊혀진 우리의 호국영웅, 2021년 6월 우리결으로...

(주)뉴스타운 부설 학도병기념사업회 T.02-978-4001 \* 학도병 동상 제작 지원 및 후원 / 국민은행 073001-04-055726 (예금주: (주)뉴스타운)



## 충격 시론

## 문재인, 당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영천에서 포로로 체포된 문형용일씨, 흉남 철수 당시 월남한 문용형일씨,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스스로 밝히

기에겐 진품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밝혀야 한다. 영토를 잃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한다. 유대민족은 2천 년간 영토를 잃고 세계 각지를 떠돌았지만 결코 그들의 역사를 잊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는 것도 모자라 역사를 봉쇄도 왜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곡을 넘어 조작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정권이 앞장서 빨간 물감으로 근대사학 전체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모조리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까지 왜곡시키니까, 그것도 모자라 친일파를 자국에 국가의 영웅들까지 친일파로 조작해 구로 물었습니다.

그 수준은 심각합니다. 문재인부터 1948년 8월15일 건국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합니다. 거기에는 '친북' 또는 '종북 좌파' 등은 6.25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라 주장합니다. 나아가 동맹국인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원흉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종북주의자들이 자유대한국을 해체하고 사회주의로 가려고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추진합니다.

해방 후 박헌영과 남로당의 목표였던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등 곳곳에 침투해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던 그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아니 더 강화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온통 거짓말과 시기가 편을 칩니다. 결례조각이 되다시피 한 이 나라 역사는 다시 재빨리 수정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주 4.3을 넘어 정경준의 동학의 난까지 민주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도 너무 갔고, 훼손을 해도 너무나 많이 했습

은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단면 민간의 사상을 의심해 하는 총성문제를 간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2월 10일 뉴스타운TV는 문재인이 아버지가 북괴군 장교 출신인 문용형에 직접 출현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방송 시청 내내 실로 충격이었습니다.

증언자는 당시 14년 15년대 2대대 소속으로 있으면서 때때 충격을 소지한 문용형을 포로로 잡아서 부대에 인계했다고 구제하진 않던제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날 방송 내용이 거짓말이라면 문재인이 가만 있었습니까.

28일 경북 영천에서 학도병에 의해 포로로 잡힌 북괴군 장교 출신인 문용형이라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모른 척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손 책 '운명'을 보면 문재인은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문용형은 어머니 강한옥, 누나 문재원은 1950년 12월 흉남 철수 당시 미군의 LST를 타고 월남했다"고 합니다. 바로 문재인이 책 내용과 뉴스타운TV에 출연한 당시 학도병의 증언이 다른 만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문재인이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흉남 출신인 아버지'는 일대 때 함흥농고를 나와 북한 지하에서 홍남시청 농업계장, 유엔군 징기 기간 동안 농업공장을 지냈고, 그는 농업계장 시절 공산화 입장을 강변하며 시달렸던 경험 때문에 다시는 공무원 생활을 잃겠다고 결심했고, 흉남철수

## 수많은 6.25 전적비...그러나 학도병은?

낙동강 전선 구축 위해 총알받이 역할 분담

국가 정상화 기를 마련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뉴스타운TV에서 발굴한 특종 문재인의 부친 문용형에 관한 기사로 인해, 학도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도병 출신인 윤용남씨가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각오하고 문재인 부친의 체포에 대한 생생한 6.25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10여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기되었으나, 결정적 증거와 증언이 나오지 않았고 문재인 본인은 말 바꾸기를 연발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계속 숨겨왔다.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70여 년 동안 철저하게 배일에 쌓인 문재인 가계에 대한 의혹과 비밀이 조만간 생생하게 파헤쳐질 것을 기대해 본다. 문재인이 정체성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크 없이 폭주하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 정상화의 기를 마련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선 낙동강 전선의 주요 전투지역에 학도병 동상 및 기념비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이런 중치대안 입무는 어찌피 뉴스타운TV의 송상용 회장이 주도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윤용남님의 증언을 이끌어 내고 방송에까지 출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송상용 회장의 애국심과 용기, 헌신과 결단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그 본에게 많은 국민적 성원과 힘을 실어주어서 학도병 사업을 가열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정상화회 기원하는 우리 애국세력이 단결하여 자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주선 (원래대 사학과 명예교수)



**대한민국어게인**  
Great KOREA Again

**"대한민국어게인" 국민계몽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사기탄핵을 국민에게 밝혀내고 문재인 좌파독재정치를 타파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같이 마스크를 의도적으로 약착같이 쓰고 다닙니다.

**대, 대한민국어게인 마스크로!**

집회조차도 정치방역으로 인해 제한되어 국민저항의 동력이 떨어진 현실속에 작지만 의미있는 생활형 애국활동의 일환으로 동참해주시길...

마스크로, 가방고리로, 열쇠고리로, 차량용스티커로... "마스크를 보는 순간 대개문도 계몽된다."

※ 구입해 주시는 만큼 발생되는 수익으로 국민계몽운동을 벌여서 계몽용 마스크와 함께 일반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구입 문의 : 애국용종다이스(애국용종 전문 디자인/생산) **박철영 010-4581-1966**

▲ 세탁가능한 판매용마스크 (1장/4,000원) 3D, 검정/백색, 대/중, 항균구리원사

▲ 계몽용(배포용)마스크 (10장/10,000원) 계몽문구와 함께 포장되어 있습니다.

열쇠고리 ₩15,000    가방고리(아크릴) ₩1,000    배지 ₩5,000    차량용스티커 ₩5,000

## 朝·中·東 등 한국 언론 출생 의혹 보도 않는 이유

한국의 언론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있다. 첫째는, 좌익 언론이다. 이들이 문재인 출생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들 언론사에는 6.25가 북침이고, KAL 858기 폭파는 전두환 정권이 꾸민 자작극이며,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에 의해 폭침되지 않았다고 믿는 기자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만약 지금 제기된 온갖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이들은 대통령에 어디에서 태어났든 그에게 문재야? 한반도에서 태어났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조로 보도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문재인에 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면에 물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우파언론들은 왜 문재인에 출생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 문제의 파급력을 알고 있다. 현재 대통령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때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잘 아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이 문제를 취재하여 보도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로부터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보복의 강도와 시기를 계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 우파언론은 현재 뉴스타운의 취재 내용을 모니터링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문재인 출생에 관한 의혹의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이 밝혀져 선거될 위반이 되면 문재인이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 선거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사상 검증이 안 된 사람을 국가지도자로 모시는 형편없는 국민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아버지 행적의 진실에 따라서는 문재인이 출생은 물론이고, 정치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문재인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영천에서 포로로 체포된 문용형일씨요, 아니면 1950년 12월 흉남 철수 당시 미군의 LST를 타고 월남한 문용형일씨요.

이 진실이 밝혀져야 국민 세대가 나눌고 있는 문재인 어머니의 의혹도 밝혀질 것이라 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진실을 스스로 밝히지않는 한 혼란 진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재인이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송상대 (정치평론가/ 송상대 TV 대표)



었다는 표현이 실려있을 것이다. 실제로 언론사 기자 중에는 우월한 정보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정권을 창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조·중·동 신문사에는 박근혜를 탄핵한 것을 기자 생활 중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자랑하는 기자들도 다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 의혹과 관련된 뉴스타운의 취재 내용을 모른 척하고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들은 우파언론들은 왜 문재인에 출생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 문제의 파급력을 알고 있다. 현재 대통령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때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잘 아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이 문제를 취재하여 보도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로부터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보복의 강도와 시기를 계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 우파언론은 현재 뉴스타운의 취재 내용을 모니터링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문재인 출생에 관한 의혹의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담의 상황에서 문재인이 출생 의혹과 같은 대사건에 움직일 국내 언론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들은 특히 우파언론들은 자신들이 위험부담 없이 보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뉴스타운, 이윤용 박지호의 의혹은 그 결과가 항상 사실로 귀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 것이다. 의혹을 들춰내지 못하는 국가는 북한 같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 문재인 정권 운영의 순간이 5분 전까지 다가오면 그때 가서 '단독보도' 또는 '특종' 등의 수식어를 붙여서 보도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문재인과 함께 권력을 만들

## 책 대신 총칼 선택한 군번 없는 6.25 참전 학도병 호국의 성지 영천에서부터 학도병 상(像) 세우자

지난 3월 11일 영천신문(지면) 3면과 12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 의혹에 대한 기사와 광고가 동시어 나왔다. (영천투데이 3월 7일자 기사수집)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메가톤급 의혹이다.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도 남았다. 특히 중앙 일간지가 거부한 광고를 감히 지역 주간지에서 용기를 내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게재한 것은 부담감이 적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6.25 전투(영천 신병전투)에서 북한군 장교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文 대통령의父를 생포한 생존자 학도병의 증언과 지난 2월 16일이 될 폭로한 뉴스타운 보도 내용, 일치하지 않은 文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 또 다른 북한 흉남 방첩대원의 생생한 생존 증언 등에는 의혹의 합리적 근거가 충분했다.

대군과 이같은 내용이 국민적 의혹으로 일파만파 확대되었음에도 유독 답변해야 할 청와대와 文 대통령, 그리고 정치권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국내 유력 일간지를 마치 마치 담요이라도 한 듯 침묵했다. 이들 침묵이 본지 보도(계제)로 이어

지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언론의 당연한 의무다. 특이 광고를 받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유력 일간지가 광고를 거부하고 환한바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비춰져 매우 유감이다.

민주주의 발전은 서로 다른 생각과 문제를 논쟁으로 시작해 서로 같은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합리적 의혹은 그 결과가 항상 사실로 귀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 것이다. 의혹을 들춰내지 못하는 국가는 북한 같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같은 뉴스타운의 폭로와 본지 보도는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살인자는 권력에 대한 사실상의 비판이다. 본지 보도가 벌써 보름, 또 뉴스타운의 폭로로부터 한달 하고도 10여일이 지났다.(3월 25일 기준) 유튜브 공식 집계만 하더라도 120만 뷰를 넘겼다. 방송은 다운받거나 본지 지면 또는 인터넷과 SNS 등을 감안하면 총히 300~400만 뷰를 훌쩍 넘길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文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다. 의혹의 가운데는 文 대통령의 출생일이 1953년이나 1949년이야? 출생지가 흉남이나 거제야? 산파가 진짜 나 가져야? 이모나 고모나 친모냐?父가 흉남철수 때 내려와 거제에 정착했냐? 신병 전투에서 전장포

로 잡혔냐? 등 수많은 의혹이 첨성산중이다. 한 나라의 수장이 출생을 의심받는다면 아니 흠여 속였다면 이는 文정권 최대 위기인 동시에 스스로 거짓증권을 자처하는 꼴이 된다. 대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하는 이유다.

"두드려야 열린다"고 했다. 적극적인 행동이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文 대통령 출생의혹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적극적인 취재 과정에서 위대한 선물을 얻었다. 6.25 전쟁에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기로에 섰을때 겨우 2주 간의 훈련만으로 군번도 계급도 없이 책 대신 총칼로 전장에 뛰어들은 조계와 같이 목숨을 바친, 바로 잊혀진 학도병들 중 '학도병'이다.

文 대통령 출생 의혹이 사실이라면 文정권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이 사실과 다르다할 사법의 잣대에 맡기면 된다. 반대로 뉴스타운의 폭로가 거짓이라면 이 또한 사법의 엄정한 처벌로써 해결할 수 있다. 본지 역시 이미 다가가고 되어 있다. 하지만 잊혀진 영웅 학도병은 다르다.

전쟁 당시 인헌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북한군의



량정신을 되살리는 물론 위국헌신에 감사하는 뜻에서라도 살아있는 우리세대에서 반드시 재조명해 이들의 업적을 기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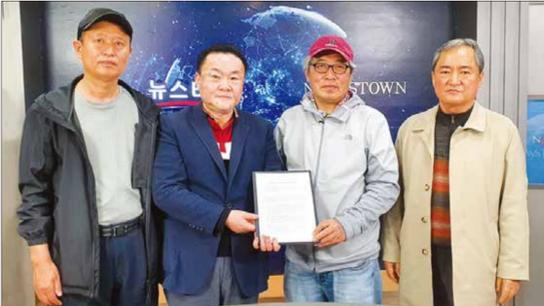
이번 文 대통령의 출생 의혹도 의혹이지만 이 과정에서 잊혀진 학도병을 다시 되새기게 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영천 신병 전투에서 文 대통령의父를 생포한 학도병 윤용 남씨의 증언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들을 영령히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존해 계신 당시 학도병 윤용 남씨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할 드립니다.

낙동강 방어선에 포함된 영천 신병전투는 6.25 당시 북한의 총 공세를 막아낸 나라의 근간 마지막 보루였다. 이곳에서 학도병 3명이 文 대통령 父, 문용형을 생포한 생존자 증언이 나왔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인헌상륙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투 창천과 후방지원 및 기초 활동에 소집 또는 자원으로 참가했다. 계급장도 군번도 없이, 책 대신 수류탄 몇 개에 총 한 자루로 전장에서 무부림치면서 싸우다 죽거나 다치는 것은 둘째치고 포로로 붙잡혀 갇혀 학살의 수조까지 당했다.

공적은 지대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영웅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학도병의 숫자는 물론 정산(사자에 대한 통계조차 명확하지 않다. 또 이들은 제도권의 6.25 참전 용사에 비해 예우조차 변별치 못한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5.18 유공자 보다 더 무대배를 받아왔다. 대통령 출생 비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건진 위대한 발견이다. 잊혀진 학도병...

10대의 나이로 참전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것이다는 일념으로 맨 대신 총을 잡은 학도병의 구국 정신과 이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새삼게 재조명해야 한다. 전후세대에게 6.25전쟁에 대한 나라사

장지수 영천신문/영천투데이 기자



▲원폭탄 나라지킴이교연합 조양전 인원지원담당, 송상용 뉴스타운 회장, 권영철 TFM팀장, 정진현 재추지원담당

## 뉴스타운·나라지킴이교연합, 자유의 호국 학도병 동상 세운다

학도병의 호국, 호국정신과 용기 기리는 대국민 계몽 사업 함께 추진

뉴스타운과 나라지킴이교연합(상임대표 송도진)이 23일 6.25 참전 학도병 동상 제작 및 건립 지

원 TFM 권영철 팀장, 조양전 인원지원담당, 정진현 재추지원담당 등은 뉴스타운 부설 학도병기념사업회에서 6.25 참전 학도병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주)뉴스타운을 방문, 송상용 뉴스타운 회장과 6.25 참전 학도병 동상 건립 사업 지원 계획과 광고, 비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후세에게 국가체제유지, 전승, 번영 등 역사적 사실 교육의장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1차로 경북 영천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학도병 동상을 세워 학도병들의 진정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송 회장은 "10대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6.25 전쟁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으로 목숨을 바쳐 싸운 어린 학도병의 애국, 호국정신을 기리고 그 용기를 교육의 지표로 삼겠다"며 "저처럼 등록을 마치는 대로 1차로 경북 영천을 시작으로 전국 및 6.25 참전국가 학도병 동상을 세워 과거 학도병들의 진정한 나라사랑 정신을 세대방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지킴이교연합은 뉴스타운이 추진하고 있는 6.25 참전 학도병 동상 제작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송 회장은 "10대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6.25 전쟁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으로 목숨을 바쳐 싸운 어린 학도병의 애국, 호국정신을 기리고 그 용기를 교육의 지표로 삼겠다"며 "저처럼 등록을 마치는 대로 1차로 경북 영천을 시작으로 전국 및 6.25 참전국가 학도병 동상을 세워 과거 학도병들의 진정한 나라사랑 정신을 세대방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원을 위해 합의를 체결했다. 이날 나라지킴이교연합 학도병 동상 건립 지

김영현 기자

## 어느 학도병의 편지

- 1950년 8월 10일 목요일 쾌청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귀속에는 무서운 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어찌 제 무서움이 인정이 되는군요

이 복잡한데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리도록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는 수많은 하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듯 찰라 탐방을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열드려 있습니다.

적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일어설지 모릅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령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머니! 언녕! 언녕! 아, 언녕은 아닙니다. 다시 울 테니까요.

\* 1950년 8월 대부분 전선을 지키기 위한 포항 전투에서 전사한 국군 제5사단 소속 학도병의 시신 주머니에서 나온 글입니다.

